투데이 칼럼

망부상(望夫像), 정읍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정 상 섭
정읍시의회 의원

지금 온 세계는 그 지역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가장 잘 함축한 문화자원으로 랜드마크(상징물)를 만들어 그것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 김제 벽골제, 고창 모양성이 그렇다.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의 예수상, 대만 샤먼지방의 정성공(鄭成功) 석상(石像)도 마찬가지다.

정읍은 내장산 국립공원, 구절초 공원, 동학농민혁명 공원, 정읍사 공원 같은 자연・역사・인문자원 덕분에 연간 정읍시 인구의 약 20배나 되는 200여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축복받은 고장이다.

조건이 이렇게 좋음에도 인구가 감소하고 관광객마저 줄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은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출산율마저 점점 떨어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정읍 인구는 향후 10년 내7~8만 명 쯤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 도시의 발전과 살림살이는 인구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인구감소 대책에 온 시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서울에서 정읍까지 1시간 남짓이면 올 수 있어 유동인구의 이동범위가 넓어지고 이동기회도 많아졌다.

여기에 주 5일 근무와 여가생활 형태의 변화로 그 지역의 독특한 보고 먹고 즐길 거리만 있다면 유명 관광지는 유동인구인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즉 정읍사공원 일원과 정읍천은 많은 기반조성비가 없이도 세세한 부분만 보완해 가면 이 곳에 온 관광객들을 시내 또는 샘고을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정읍의 고유성과 특색을 살린 이 거점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정읍을 알고 전통시장에서 보고 먹고 즐기고 느끼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그러면 이들에게 무엇으로 정읍을 알게 하고 감동을 줄 것인가? 그 답은 정읍사(詞) 라는 역사・문화자원에서 찾아야 한다.

행상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을 빌었던 정읍사(詞)는 1,300여 년 전 망부(望夫)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다.

정읍사 여인이 남편의 무사귀환과 변치 않는 부부사랑의 소망을 기원하였듯이 아양산 정읍사 망부상 공원을 사랑과 소망을 기원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이곳에 와서 진심과 정성을 다해 소망을 빌면 누구나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홍보해야 한다.

삶이 힘들거나 괴로울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다짐과 동기부여를 하고 성취의욕을 높이고 사랑과 소망성취를 기원하는 장소로 스토리텔링화 해야 한다.

그래서 정읍사 망부상 공원 일원을 연인들에게는 사랑의 결실의 장소로, 부부치유센터 같은 힐링시설을 만들어 불화부부에게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부부애를 회복할 수 있는 장소로, 수험생이나 취준생에게는 합격을 기원하는 장소로, 더 나아가 이웃사랑과 인류애로 승화시키는 사랑과 희망의 성지로 만들어야 한다.

정읍사 망부상은 정읍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잘 갖추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소망의 상징으로 이미지화 되어 있다. 따라서 정읍사 망부상을 크게 만들어 정읍의 랜드마크(상징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 상(像)을 아양산 7부 능선쯤 시내 조망이 좋은 곳에 세워야 한다.

그래서 정읍하면 정읍사 망부상이 정읍의 상징물로 누구나 떠오를 수 있도록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다양한 홍보를 해야 한다.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에 오도록 다양한 체험과 보고 먹고 즐길거리 등을 개발해야 한다.

더불어 가족 및 단체 관광객들도 이곳을 찾도록 다양한 편의시설과 부속시설물들도 구비 보완해가야 한다. 그래서 이곳이 중・장기적인 정읍발전의 성장동력이 되고 정읍의 밝은 미래의 희망을 여는 장소가 되게 해야 한다.

사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빠른 보조를

전북도는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보조를 맞추어야겠다. 빠른 추진을 보여야겠다는 당부이다. 보도된 내용과는 다르게 빠른 추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지난해 전북도는 다른 광역시도들 보다 좋은 성과를 보여줘 도민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말이다. 그것은 분명히 제몫 잡기의 표본 같은 것이었다. 전북도는 올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겠다. 다른 광역시도들도 자기 지역을 위해 많은 구상을 하고 있을 터이니 속도감 있는 추진이 소망스럽다.

사업 기간 동안 있을 물가 인상을 감안해도 정부가 밝힌 전체 예산 '50조 원' 은 거대한 액수이다. 전북도의 예산 규모를 생각할 때 더욱 그런 생각이다. 전북도더러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정책에 계속 주목하라는 이유는 그 때문만이 아니다. 정부는 사업의 선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정부는 그렇게 했고 지난해 전북도는 도민의 뜻에 부응해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도민들은 그같은 성과를 올해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해 제몫 찾기가 계속돼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방심했다가는 주는 예산도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다가는 내년과 내후년에 서울시와 잘 나가는 광역지자체들의 잔치판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수도권 맞춤형 정책' 으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이 도내에 혜택을 줄 것이지만 그래도 마냥 낙관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전북도는 도민들이 도시 재생사업에 거는 기대가 큼을 늘 상기하고 있어야 한다.

본보는 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한다고 여러번 재촉한 바 있다. 특히 전주시를 향해 그런 말을 자주했다. 구도심 활성화 사업은 다른 시군들도 욕심을 내야할 일이다. 여기 상기하거니와 전주시는 수년 전부터 가장 인간적인 플랜 5G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인간적인 플랜 5G를 위해서라도 전주시는 더욱 열심을 내야 한다. 각 시군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구도심 지역을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자는 당부이다.

저출산 대책 속히 내놓아야

저출산 문제가 어찌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북도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여태 진전이 없어 보인다. 그것은 전북도가 저출산 문제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고민하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그게 다 변명을 위한 보고였지 싶다.

저출산 문제가 지역의 오랜 숙제였음에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해보려는 노력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전북도의 저출산 대책이 너무 늦다. 관계 전문가들과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핵심과제를 선정해 그 이후에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그후 감감 무소식이다. 정말이지 이대로는 지역의 앞날이 어둡다. 저출산의 고착화 때문에 '데드 크로스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사실이지 데드크로스 현상은 이미 2016년부터 있었다.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많아야 맞는데 우리 지역의 경우는 그게 아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불만은 그 근거가 없지 않다. 전북도는 다른 광역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수 배워야겠다. 출산 문제가 이쪽보다 덜 심각한 다른 광역시도들도 5개년 출산 정책안이며 출산 장려 추진단을 조직하는 등 출산 캠페인이 활발하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전북도는 기존 대책 그대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비교가 된다. 전북도는 저출산 문제를 심상하게 여겨선 안 된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능동적인 모색이 필요한 오늘이다.

아이낳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보다 차원 높은 출산 장려책을 내놓아야겠다.

전북도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2백만 도민을 운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84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팩트이다. 출산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중에 고령화 고착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예전에도 지적했거니와 거주 인구의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계속 늘고 있는데 신생아 울음소리는 어쩌다 드물게 듣고 있으니 말이다.

독자제언

가을 나들이 전 미아방지 '코드아담' 알아두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역축제와 형형색색의 가을 꽃 구경을 위해 나들이를 많이 가는 요즘이다. 따뜻한 가을 햇살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책으로 2014년 7월에 국내에도 도입 된 '코드아담' 제도는 백화점과 공연장, 공공장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신고가 접수 될 경우 시설의 입구를 차단해 조속히 아동을 찾아 미아를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또는 지역축제장이면 실종아동 발생 시 의무적으로 초기 총력대응을 하도록 하였다.

해당 다중이용시설・장소 내에서 아동 등이 실종될 경우 실종예방지침에 따라 관리자는 즉각 안내방송을 하고 경보발령과 출입문 봉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색 10분이 지났을 때도 아이를 찾지 못할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실종아동 수색 골든타임은 아이가 실종된 직후 2~3 시간이다.

실종 신고 후 시간이 지날수록 못 찾을 확률이 급증해 실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장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는 미아발생을 막기 위해 코드아담 활성화는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아직 코드아담(실종예방지침) 제도를 모르고 있는 보호자들이 많다.

이 의미 있는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의 보호자와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가을 나들이 가기 전에는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을 꼭 기억 해 소중한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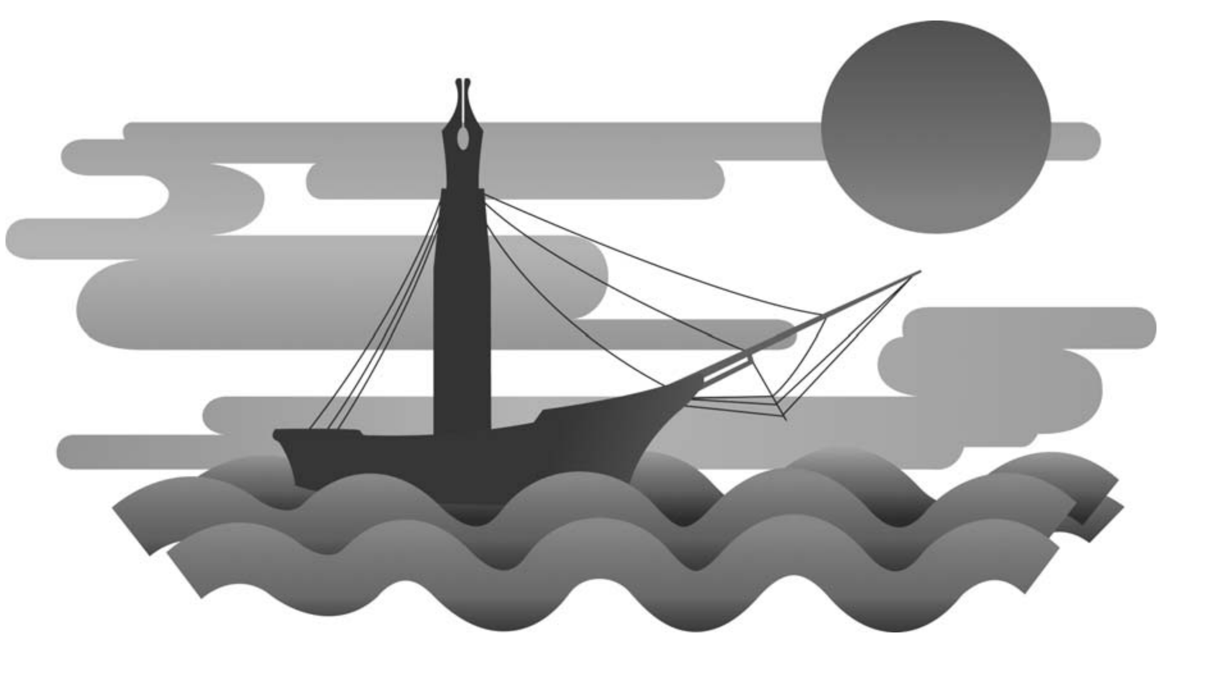
김소정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화살 꽂힌 개

화살을 맞은 개는 결국 죽었다. 뒷목에 화살이 꽂힌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잡종 셰퍼드를 지난달 30일 발견한 여성은 미국 휴스턴의 동물보호소에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 1일 보호소에서 2차 수술을 받다가 숨지고말았다. 휴스턴 지역 관련당국은 범인을 추적 중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 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 전주매일